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5 Issue | Vol. 87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투자 유치 추진 · 조세 협상서 최전선 유지하는 재무부(DOF) —page 1
- 싱크탱크: 4분기 경제성장률 4.6% 전망 — page 2
- 페소, 내년 1분기 말까지 1달러당 60페소 도달 가능 — page 2-3
- PEZA, 2026년 신규 경제특구 30곳 개설 목표 — page 3-4
- 고용주 단체, 2026년 투자 회복 기대 — page 4-5
- 연말 리뷰: 2025년 에너지, 필리핀 청정 에너지 미래 재설정 — page 5-6
- 고: 경제, 1분기까지 정상 궤도 복귀 — page 6-7

## 투자 유치 추진 · 조세 협상서 최전선 유지하는 재무부(DOF)

December 22,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프레더릭 고 재무장관은 재무부(DOF)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및 투자 논의에서 조세와 관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DOF Secretary Frederick Go

금요일 한 인터뷰에서 고 장관은 공식적인 무역 협상이 다시 산업통상부(DTI) 관할로 이관되더라도,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투자 유치 조율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돕겠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 창출, 즉 고용 확대”라며, 성장 제고를 위해 우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 검증 · 해외 순방

고 장관은 내년에 예정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해외 투자 유치 순방을 앞두고, 잠재 투자자들을 선별하고 접촉하는 과정에도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필리핀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주요 투자자들을 만날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야 할지 검증하고 조율하는 데에도 계속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원하시면 더 직역에 가까운 버전, 더 간결한 기사체, 또는 용어를 특정 매체 스타일에 맞게 통일해 드릴 수도 있어요.

### DTI, 협상 주도... DOF, 세금 담당

공식 무역 협상이 이제 명확히 DTI(무역산업부)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고(Go)는 DOF(재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무역 협상에서 논의의 90%를 차지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며, 관세 문제가 협상의 중심에 재무 장관을 놓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DTI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현재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아세안, 칠레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DTI는 이러한 계류 중인 협정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투자 관련 조직 개편

고(Go)는 대통령실(OP)이 경제 담당 차관실(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 부서가 그가 과거에 맡았던 대통령 투자 · 경제특별보좌관실(OSAPIEA)이 수행하던 기능을 인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사무국의 수장이 최근 정부로 복귀한 어윈 산타 아나(Erwin Santa An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전 OSAPIEA 팀 가운데 약 절반인 10명 안팎의 직원이 대통령실에 잔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개혁 유산

OSAPIEA 재직 기간 동안 고는 ARROW 법, CREATE MORE 법, 새로운 민관협력(PPP) 법전, 루손 경제 회랑(Luzon Economic Corridor) 지원, 투자자 임대법(Investors' Lease Act) 개정, 그리고 반도체 · 전자산업 자문위원회 설립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dofs-go-to-stay-front-line-in-investment-drive-tax-talks/>

## 싱크탱크: 4분기 경제성장을 4.6% 전망

December 19,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GROCERY shoppers line up at the checkout in Antipolo City in this file photo.

UA&P의 Market Call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필리핀 경제는 물가 상승률 하락,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수출 증가,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 지출 회복에 힘입어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25년 4분기에는 3분기 4% 성장 대비 4.6%로 더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낮은 인플레이션, [특히 폐소 기준으로] 증가한 해외 근로자 송금과 수출,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 지출의 전년 대비 성장세 회복은 소비자들이 3분기보다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을 더 활발히 이용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지출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감소가 이번 성장을 견인하며, 가계의 연말 소비와 고용 회복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을 돕고, 수출이 연말까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고 경제학자들은 덧붙였다.

Market Call 보고서는 2025년 마지막 두 달 동안 고용이 증가하여 높아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이후 심리 위축이 4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11월 전체 물가 상승률이 1.5%로 둔화되었다고 경제학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10월 실업률은 5%로 급등했는데, 이는 자연재해와 정부 지출 둔화로 채용이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역 측면에서는 강한 수출 수요가 10월 기준 19.4% 성장하고, 수입 수요가 6.5%로 약화되면서 무역적자가 34.2% 감소하여 38억 달러로 좁혀졌다.

한편, 산업 생산 지표는 부진을 보였으며, 11월 제조업 PMI는 47.4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 달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5년 3분기 필리핀 경제가 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3.8%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3분기 경제 성과로 인해 2025년 평균 성장률은 5%로, 정부 목표 범위인 5.5~6.5%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국가 수석 경제학자는 정부 목표 범위의 하단인 5.5%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Balisacan 수석 경제학자는 “이미 5.5% 하단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다. 이는 4분기에 약 6.9%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Se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1/08/infra-fiascos-impact-q3-growth-a-mere-4/>)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19/think-tank-economic-growth-to-hit-4-6-in-q4/>

## 폐소, 내년 1분기 말까지 1달러당 60폐소 도달 가능

December 22,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ANZ 리서치에 따르면, 약한 경제 모멘텀, 불안정한 투자 심리, 정책 리스크가 필리핀 폐소에 다시 하락 압력을 가해 내년 1분기 말까지 달러당 60폐소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된다.

**The Manila Times®**

ANZ 리서치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분기 말까지 폐소가 달러 대비 60까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연말까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 폐소는 경제 성장 전망 약화와 투자자 심리 악화로 인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달 초에는 달러당 59.22폐소로 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린 결과다. [Cont. page 3]

## 페소, 내년 1분기 말까지 1달러당 60페소 도달 가능

[Cont. from page 2]

해외 근로자 송금이 계절적으로 통상적인 지지 요인 역할을 하더라도, 11월~12월 송금 성수기 동안 페소는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금요일 증가는 달러당 58.7페소로 14.5센타보 약세를 나타냈다.

ANZ 리서치는 “지속적인 경제 약세와 예상보다 깊은 BSP 금리 인하 사이클이 페소 하락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정책위원회(Monetary Board)는 이번 달 주요 정책금리를 0.25% 추가 인하해 4.5%로 조정했다.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Eli Remolona Jr.)는 이번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ANZ 리서치는 2026년 1분기에 추가 0.25%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으며, 경제 모멘텀이 최소 상반기까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공공 투자 질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추가 정책 조정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Z 리서치는 경제 성장이 2027년까지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거버넌스 문제로 인프라 지출이 지연되고 신뢰가 훼손되면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4.8%로 둔화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5.0%, 2027년에는 5.6%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5년 목표치 5.5~6.5% 및 2026~2028년 목표치 6.0~7.0%를 밑도는 수준이다.

ANZ 리서치는 “주요 제약 요인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거버넌스 실패로 인한 수축적 재정 기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정 기조 변화는 자본 형성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심리에 큰 부담을 주어 기업이 신규 투자에 신중해지고, 가계는 재량적 소비를 미루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ANZ 리서치는 국내 투자 둔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도 계속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12/22/business/top-business/peso-could-hit-p601-by-end-q1-next-year/2247658>

## PEZA, 2026년 신규 경제특구 30곳 개설 목표

December 22, 2025 | Logan Kal-El Zapanta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은 2026년에 30개의 신규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허브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 목표의 절반가량은 1월 중 이미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za는 대통령 마르코스가 최대 14개의 신규 경제특구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Peza는 올해 말까지 비슷한 수의 경제특구 승인을 기대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5년 30개의 신규 경제특구 승인이라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Peza 테레소 팡가(Tereso Panga) 국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관이 여전히 국가 내 개발이 덜 된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는 새로운 투자처가 있을 때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성장 지역, 즉 농촌 지역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팡가는 페자(Peza)의 투자자 감사의 밤 행사에서 말했다.

[Cont. page 4]

## PEZA, 2026년 신규 경제특구 30곳 개설 목표

[Cont. from page 3]

### 비콜·팔라완의 신규 경제구역

행사 연설에서 판가는 페자가 2022년, 즉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35개의 신규 경제구역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1개의 경제구역이 선포되었고, 2024년에는 16개가 추가되었다.

경제구역은 페자의 추천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포를 통해 지정된다. 이러한 구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농산업, 산업, 관광·레크리에이션, 상업, 금융 및 투자 중심지로 전환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페자가 내년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규 공공 경제구역에는 팔라완과 비콜 지역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팔라완 메가 경제구역(PMEZ)은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 광활한 28,000헥타르 부지 내 입지를 모색하고 있다. 페자는 이를 “국가의 차세대 랜드마크 경제구역이자 페자의 첫 번째 대규모 정부 주도 친환경 산업 타운십”이라고 설명했다.

PMEZ에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으로는 태국의 차로엔 포크판 그룹(Charoen Pokphand Group), 대만의 수산 양식 운영업체, 스테비아 브랜드를 관리하는 페루 기업, 현지 코코넛 수출업체, 말전 회사 등이 있다.

PMEZ는 2026년 중반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페자는 이전에 이와히크 교도소(Iwahig Prison and Penal Farm)에서 사용되던 4,000헥타르를 이전하기 위해 교정청(Bureau of Corrections)과 공동 각서(Memorandum Circular)를 체결했다.

운영이 시작되면 신규 경제구역은 페자의 투자 실적을 더욱 전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승인된 307개 프로젝트에서 페자의 투자 실적은 역대 최고인 2,371억 페소에 달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5712/peza-aims-to-open-30-new-ecozones-in-2026>*

## 고용주 단체, 2026년 투자 회복 기대

December 22, 2025 | Vonn Andrei E. Villamiel | BusinessWorld

필리핀 고용주 연합(ECoP)은 투자자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을 추진할 경우 2026년에는 전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요일 성명에서 ECoP 회장 세르히오 R. 오르티즈-루이스 주니어는 올해 경제가 “실망스러운”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부패 문제와 홍수 방지 논란 이후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 성장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9개월 평균 성장률은 5%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수정한 연간 성장 목표치 5.5~6.5%보다 낮은 수치다.

필리핀 수출업자 연합 회장이기도 한 오르티즈-루이스 회장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필리핀에 대한 투자 관련 방문이 급격히 감소한 데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필리핀이 지역 경쟁국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오르티즈-루이스 회장은 마르코스 행정부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내년에 약 80만~100만 명의 신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CoP는 성명에서 오르티즈-루이스 회장을 인용하며 “자본가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주로 국가 예산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고, 경제를 2026년에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흐리게 하는 불필요한 문제에 주의를 빼앗기거나 반응하지 않는 데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9월 실업률은 전년 대비 3.8%로 상승했으며, 이는 약 196만 명의 실업 필리핀인을 의미하며 최근 자연재해의 영향을 반영한다.

[Cont. page 5]



JOBSEEKERS attend a job fair at a mall in Antipolo, Rizal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 고용주 단체, 2026년 투자 회복 기대

[Cont. from page 5]

오르티즈-루이스 회장은 또한 정부가 독립 인프라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Infrastructure)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여 홍수 방지 및 기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부패, 불법 행위, 자금 남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입법자와 공공사업 관계자들이 홍수 방지 프로젝트에서 수십억 페소를 빼돌린 혐의로 연루된 스캔들 가운데 행정명령 제94호(Executive Order No. 94)를 통해 설립되었다.

오르티즈-루이스 회장은 기업 부문이 이러한 불법 행위 배후자들의 신원 확인과 체포를 정부의 부패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2/22/720253/employers-group-hopes-for-investor-recovery-in-2026/>

## 연말 리뷰: 2025년 에너지, 필리핀 청정 에너지 미래 재설정

December 23, 2025 | Jed Macapagal Malaya Business Insight



샤론 가린 에너지 장관은 2025년을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필리핀이 수십 년간의 망설임을 끝내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환은 연말 현재 필리핀 전력 전환의 현황을 정의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현대화되는 시스템, 늘어나는 신규 발전 용량, 그리고 장기적인 저렴한 전력 가격을 위한 대가로 나타나는 단기 비용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더 진보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변화의 최전선

9월 말 기준, 필리핀은 10,400메가와트(MW)의 그리드 연결 재생에너지(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31,916MW 전력 믹스의 32.6%에 해당한다.

에너지부(DOE)는 이 비율을 2030년까지 35%, 205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때는 야심찬 목표로 여겨졌지만 이제 점점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진력의 상당 부분은 DOE의 경쟁 입찰 플랫폼인 그린 에너지 경매(GEA) 덕분이다. GEA는 에너지 규제위원회(ERC)가 정한 기준 가격을 초과하거나 충족하는 개발자에게 고정 인센티브 요금을 제공한다.

단, 조건은 명확하다. 프로젝트는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한다.

### 향후 25년 제정의

DOE는 다섯 번의 경매 라운드에서 26,000MW 이상의 미래 재생에너지 용량을 승인했으며, 이는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정에너지 파이프라인이다. 신규 용량은 태양광, 풍력, 부유식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가 주도하며, 2028년부터는 해상풍력도 포함될 예정이다.

가린 장관에 따르면, 이 전체 포트폴리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생각”의 산물이며, 한때 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가던 필리핀에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정책 생태계를 반영한다.

### 약속과 현실

DOE의 낙관적 전망은 대부분 필리핀 독립 전력시장 운영자(IEMOP)의 시장 시뮬레이션에 기반하고 있다.

[Cont. from page 6]



## 연말 리뷰: 2025년 에너지, 필리핀 청정 에너지 미래 재설정

[Cont. from page 5]

연구에 따르면, 모든 GEA 수상 용량이 가동되면 2050년까지 평균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페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루손에서는 모델링된 요금이 2026년 kWh당 4.95페소에서 2050년에는 단 0.28페소로 떨어지며, 비사야와 민다나오에서도 유사한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저렴한 전력으로 가는 길은 먼저 상승에서 시작된다. ERC는 2026년 1월부터 GEA 자격을 갖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차액 지급을 위해 그린 에너지 경매 수당(GEA-AII)을 kWh당 0.0371페소로 승인했다.

이 비용은 고객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감사될 예정이다.

### 단기적 부담

분석가들은 내년에 이 부과금으로 인해 요금이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용량이 그리드에 들어오면서 그 영향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캐피털 증권사의 피터 가르나체는 2026년에 약 4,000MW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가동될 예정이며, 이는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에너지 여건이 필리핀의 전력 전환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석탄 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이며, 재생에너지 배치가 가속화되고, 천연가스와 원자력 통합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재생에너지 용량은 향후 가정과 기업에 전가되는 전력 요금 급등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말 평가

필리핀은 2025년을 저렴한 전력과 함께 마무리하지는 않지만—그것은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줄을 서고 있고, 규제 당국은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전환에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방향은 마침내 명확하다.

그리고 오랜만에, 필리핀의 청정 에너지 미래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임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year-end-review-energy-2025-resets-ph-clean-energy-future/>

## 고: 경제, 1분기까지 정상 궤도 복귀

December 23,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재무장관 프레데릭 D. 고(Frederick D. Go)는 홍수 방지 스캔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신속히 기소될 경우, 경제가 1분기까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12월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고 장관은 부패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 신속히 해결될 경우, 2026년 초 정부 수입이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인물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면, 1분기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것”이라며, “저는 1분기까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3분기에는 국내 경제성장이 4%로 둔화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9개월 동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5%로, 정부 목표치인 5.5~6.5%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사업 관계자, 입법자, 민간 계약자들이 수십억 페소 규모의 홍수 방지 프로젝트 비리와 연루된 광범위한 논란이 정부 지출과 소비를 위축시켰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공공사업 조사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경제에도 좋고, 따라서 세수 확보에도 더 좋습니다,” 라고 고 장관은 말했다. [Cont. page 7]



Poinsettia lanterns decorate a street inside Araneta City in Cubao, Quezon City, Nov. 28.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 고: 경제, 1분기까지 정상 궤도 복귀

[Cont. from page 6]

그는 이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1분기에는 훨씬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인프라 지출 감소는 정부 세수에도 타격을 주었다.

고 장관에 따르면, 관세청(BoC)과 국세청(BIR)은 올해 부패 조사와 4개월간의 쌀 수입 금지로 인해 세수 징수가 “둔화” 되었다.

그는 “성장은 성장이며, 징수 실적은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 목표치 대비 둔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 세수는 1.13% 감소한 3조 8,100억 페소로, 연간 수정 목표 4조 5,200억 페소의 84.25%에 불과했다. 이 목표는 2024년 실제 세수 4조 4,200억 페소보다 2.23% 높은 수치다.

고 장관은 “예를 들어, 관세청의 경우 연중 12개월 중 약 4개월 동안 쌀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확실히 관세 징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 감소는 근무일수를 줄인 악천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아리엘 F. 네포무세노(Ariel F. Nepomuceno) 청장은 지난주 올해 세수가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2025년 예상 세수는 9,394억 페소로, 연간 목표 9,587억 페소보다 2% 낮다.

고 장관은 “페소가 가치 하락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달러 기반이므로 관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아마 12월은 세수 징수에 좋은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페소화 가치는 11월 이후 여러 차례 달러당 59페소 선을 돌파했으며, 12월 9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59.22페소까지 하락했다.

한편, 고 장관은 12월 국세청(BIR) 세수 징수 실적이 “고무적” 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경우, 연초 상반기에는 실적이 매우 좋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둔화되었지만, 다행히 매달 징수 실적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1~10월 국세청 징수액은 9.55% 증가한 2조 6,500억 페소로, 연간 목표 3조 2,200억 페소의 82.35%를 달성했다.

고 장관은 세수 목표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달 경제 관리들은 거시경제 가정과 목표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정부의 추격적 지출이 신뢰할 수 있는 반부패 및 거버넌스 개혁과 결합될 경우, 2026년 초 경제 회복과 세수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내년 경제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출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입니다. 3분기에는 비정상적 홍수 방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적 잡음 때문에 성장 둔화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리카포트는 또한 거버넌스 개혁과 재정 조치가 예산 적자를 줄이고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이코노미아 자문연구(Oikonomia Advisory and Research, Inc.)의 경제학자 레이니엘 M. 에레스(Reinielle Matt M. Erece)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연말 시즌 동안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한 만큼 세수 징수는 계속 개선될 수 있으며,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며,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 소득을 얻는 가계는 공공 예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면서 세금 신고를 번거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2/23/720492/go-economy-back-on-track-by-q1/>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 63.3MW Calatagan Solar Farm